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강화

익산시, 코로나 위기극복 전국 유일 카드수수료 전액·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익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매칭 지원사업(최대 50만원 지원)에 시비를 최대 190만원을 추가해 전국에서 최대 카드수수료 240만원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는 이르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마무리 된 뒤인 3월 말부터 접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자금경색 위기를 대비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융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복신용보증재단과 관내 10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담보 대신 특례보증을 통해 개인 신용평점(500점~889점)인 기존 신용등급 4~7등급 해당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이자 또한 본인부담 1%를 제외하고 최대 4%까지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는 등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시는 올 한해 12월 21일 기준 469명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76억9,500만원 자금자원을 도왔다.

특히 개인신용평점이 낮아 특례보증을 못받는 저신용 소상공인(기존 신용등급 7~10등급)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및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복익산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대 2천만원 운영자금 대출을 돕고 전국 최초로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전액을 지원 중이다.익산시에서 이자 4.5%(3개월후 3.5%)를 전액 지원해 시중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은 이자 부담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및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전액 지원사업의 주요 요건을 삭제하고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도모를 위해 협력을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들의 영업 재개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신규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으로서 폐업 신고 후 익산시에서 재창업했거나,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이다.

이 외에도 시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공제가입 지원사업,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을 지원한다.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전국 유일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전액지원사업, 전국 최대혜택의 익산다이어움 20% 혜택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회복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사업 추진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가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평생교육을 책임질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민 중심 평생학습도시 도약

익산시, 랜드마크 평생학습관·문해교육센터 개관

익산시가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평생교육을 책임질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는 다양한 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는 최근 평생교육의 랜드마크인 평생학습관과 문해교육센터를 개관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단독 평생학습관이 없어 아쉬워했던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됐으며 6개월여간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어 시는 쾌적한 평생학습 환경을 위해 공공시설 옥상녹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확보해 학습관 옥상에 사계절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도심 속 시민 휴식 정원으로 꾸몄다.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맞춤형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한글, 기초영어, 디지털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6대 영역·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266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익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문해교육센터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디지털 문해교육의 일환으로 주말 학당·배달학당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으로 진학한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재)익산 사랑장학재단은 서울 흥재행복연합기숙사와 장기 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기숙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배달의 명수 시즌2, 다양한 할인이벤트 출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24일부터 음식배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합쇼핑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출시 이후 누적매출 160억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종합쇼핑 플랫폼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배달의 명수 시즌2' 오픈 기념으로 ▲오픈기념 할인쿠폰 이벤트, ▲2021년 만족도 조사 참여 할인쿠폰 이벤트, ▲생필품 공동구매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같이 진행된다.

오픈기념 할인쿠폰은 24일부터 신규 입점 가맹점 대상 주문 시 5,000원 할인 및 기존 입점 가맹점 주문 시 2,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 할인쿠폰은 오는 27일부터 설문조사 참여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새롭게 준비된 '공동구매전'은 군산 슈퍼마켓협동조합 지원으로 생필품 7개 품목을 시장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28일까지 한정수량으로 실시 된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내년 상반기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50명, 공공근로사업 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7명으로 13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취업준비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청소년 정책 국무총리상 수상

익산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발굴·확산 위한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228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질의응답, 현지 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와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계획 및 기반확보, 유관정책 연계성, 정책 효과성 등 성과를 인정받아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실질적 요구에 맞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청소년 욕구 및 실태 조사를 통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 받았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해,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심화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사업 및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익산=이득훈 기자

믿고 먹을 수 있는 생선! 신영시장으로 오세요~

군산 친환경 생선건조장 개장

신영시장에 친환경 생선건조장이 설치돼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생선유통체계가 완성됐다.

군산시는 신영시장 내 친환경 생선건조장 개장식을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영시장 상인회 및 구도심 상권활성화 르네상스 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부시장, 윤종욱 전북중소기업청장, 송기섭 신영시장상인회장 및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생선건조장 시설 관람과 반건조 생선구이 시연을 참관했다.

신영시장 생선건조장은 총사업비 7억 5천만원으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구도심 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이 연계해 추진한 사업이다.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15일 제1회 상권르네상스 성과공유대회에서 신영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동안 신영시장은 바래 등 생선이



신영시장에 친환경 생선건조장이 설치돼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생선유통체계가 완성됐다.

대표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변화된 건조장이 없어 재래식 방식으로 생선을 건조해 비위생적 문제 등이 야기되기도 했었다.

송기섭 신영시장상인회장은 "현대적 생선건조장 시설을 마련해준 강임준 군산시장과 르네상스사업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시설을 통

해 신영시장의 생선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친환경 생선건조장은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영시장을 곳곳까지 지켜온 상인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전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